



■ 전화 | 5526-2404 | 5526-5464 ■ CEL | 04455-3563-2158 ■ E-mail : sol6070@gmail.com
■ 은행계좌 ■ Santander | 65-50535887-2 ■ CLAVE | 014180655053588720 ■ HANIN DIARIO SA DE CV

한인매일 연속 보도 찌라시의 진수 엘코레아노 파렴치의 진수 이임걸 영사 탄원서

4화 그러나 찌라시는 침몰한다. (2)

어떤 이(자국민 양모씨)는 새로운 삶을 찾아 동생과 지인이 있는 멕시코에 왔다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는 검찰의 손에 의해 누명을 쓰고 차디찬 옥살이를 하고 있다. (엘코레아노)

정확한 사실 내용이다. 그러나 엘코 발행인은 인성이 비열하다. 바로 1주일 전만해도 엘코는 영사 측근의 발언을 인용하며 "저는 그 분이 죄가 없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멕시코 사법 당국이 할 일이며" 라고 보도했다. 그러더니 12월 20일자에는 상기와 같이 돌연 "그 분이" 누명을 쓰고 차디찬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영사의 직무유기로 멕시코 감옥에서 파멸의 기록에서 있는 한 자국 여성을 대상으로 이처럼 "조변석개" 오락가락하는 기사를 써대는 인간은 누구인가? 바로 "표리부동"의 전형 엘코레아노 발행인이다.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며 성스런 찬양을 인도한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임걸 영사는) 늘 하던 그대로 사건 사고 현장을 열심히 누비며 교민들을 돕다가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오명을 쓰고 가슴 한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엘코레아노)

엘코의 거짓 감성팔이는 찌라시의 압권이다. 기본 영사 조력도 행하지 않은 이임걸 경찰 영사의 직무유기

와 업무 전문성 결여에서 자국민 양모씨의 억울한 옥살이가 발생한 것이다. 오명이 아니라 바로 경찰 영사의 책임이며 이는 경찰 영사 본인도 국감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찌라시가 이런 허위 기사나 올리며 몰타기를 하니 본국에서는 이 작태를 이임걸 경찰 영사의 사주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혜가 결여된 엘코 발행인은 오히려 이임걸 경찰 영사의 인생을 한층 더 망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멕시코 검찰)이 노렸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그 날 들이닥쳐서 소위 '거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기소할 수 있는 아무런 정황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엘코레아노)

바로 그렇다. 금전 갈취가 그들의 목적이었음은 피해자 측과 자국민 구명에 관여한 모든 분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동포 업소 W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전혀 아니며 모든 허가가 완벽한 합법적 사업체였다. 더욱이 멕시코 검찰이 기소한 "인신매매 성착취 범죄"는 그들의 조작임을 엘코 발행인을 비롯 거의 모든 교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엘코레아노는 멕시코 검찰이 동포 업소의 죄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임걸 경찰 영사와 합세해 피해자 측을 계속 매도해 왔다. 심지어는 이 동포 업소에서 성매매와 임금 갈취가 있었다는 듯 거짓 기

사를 내보낸 장본인도 바로 엘코 발행인이다. 그랬던 사람이 예고도 없이 이 같은 사실 보도를 하는 변신은 정말 야비하지 않은가? 엘코의 허위 보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측에 진솔한 사과부터 먼저 하자. 종교인인가?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무경우 하게 살지 않는다.

(멕시코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지 - 중략 - 오로지 그들(멕시코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5인의 서명만으로 아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엘코레아노)

왜 증거가 없었겠는가? 지난 6월 21일자 엘코레아노는 "멕시코 검찰은 지난 1월 16일에 이미 업소의 CCTV 자료와 컴퓨터 자료, 그리고 피해자 5인의 숙소로 알려진 압부르고 OO번지에 설치된 CCTV 녹취본, 각종 장부와 업소 관리 노트,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씨와 함께 수감 중인 현지인 종업원 A와 달아난 사주 L씨 사이에 주고받았던 왓샷 문자 전체 내역을 압수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마치 인신매매와 성착취가 있었음을 연상케 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 그러나 엘코가 언급한 이 모든 증거는 어떠한 범죄 내용도 없이 단순한 일상적 정보만 담고 있었기에 헌법소원 재판에서 일괄 기각되었던 것이다. 자국민을 범죄시킨 수많은 기사를 유포해온 엘코의 죄상은 유명 사건을 조작한 멕시코 공권력의 범죄 행위에 비

견됨을 깨달아야 한다. 이 같은 찌라시는 박멸 되어 할 교민 사회의 해충이다.

사실 이 사건의 전말을 시간차 순으로 놓고 보면 양 모씨의 구속 이후의 영사조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도리어 교도소에 수감된 수많은 외국인들 중 대사관에서 면회를 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엘코레아노)

구속 이후의 영사 조력이 훌륭하면 무엇에 쓸 것인가? 사람을 죽여 놓고 아무리 염을 잘하면 무엇 하자는 것인가? 그러나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여기서 우리는 엘코가 찌라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영사 조력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 해당 이유라도 몇 개 읊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난 10월 국감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공관 대사가 고작 단 한 차례 면피용 면회를 간 것이 대단하다는 것인가? 경찰 영사는 국감이 확정되기까지 자의로 자국민을 면회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자국민의 옥살이 초기 이임걸 경찰 영사는 몇 번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열악한 교도소 환경에서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피해자 측이 간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영사가 더 잘 알고 있다. 이후 약 6개월간 단 한번의 영사 면회가 없었다. 이임걸 경찰 영사는 국감장에서, 법원 참

멕시코시티 기상 정보

오늘	최고 : 22	
내일	최저 : 8	
오늘	최고 : 22	
내일	최저 : 8	

환율안내 오늘 오전 10시 기준

멕시코 페소 (Banamex)
Compra 20.25 Venta 21.00
원화 (외환은행)
사실때 1225 / 파실때 1183

긴급 전화

앰블런스 065
경찰서 066
소방서 068
전화번호 안내 040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안내

차량 번호판 끝자리 : 검사 기간
5번 / 6번 : 1월-2월, 7월-8월
7번 / 8번 : 2월-3월, 8월-9월
3번 / 4번 : 3월-4월, 9월-10월
1번 / 2번 : 4월-5월, 10월-11월
9번 / 0번 : 5월-6월, 11월-12월